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제물류시장 및 국제물류사업 동향 중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신규사업 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회 회원 및 관련분야 기업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관련 정부정책 등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관련 국내 관심기업, 정·관·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업에 다수기업들의 투자요청이 있을 경우 본 센터가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및 지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 DP World, 수리남(Suriname) 현지 업체 매입을 통한 남미 물류사업 진출-----	2
□ 인도네시아, 2015년 ASEAN 경제통합 대비 14개 항만 개발 예정-----	3
□ APM 터미널, 인도네시아 2015년까지 600~700만 TEU 컨테이너 부두 필요 전망-----	3
□ 그리스 트리아시오(Thriassio) 물류단지 입찰 무산-----	4
□ 페루, 브라질과 인프라 연결사업 가속화-----	5

1)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책임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김홍매 책임연구원(02-2105-2828, hisgrace@kmi.re.kr), 박철원 연구원(02-2105-2982, ironwon@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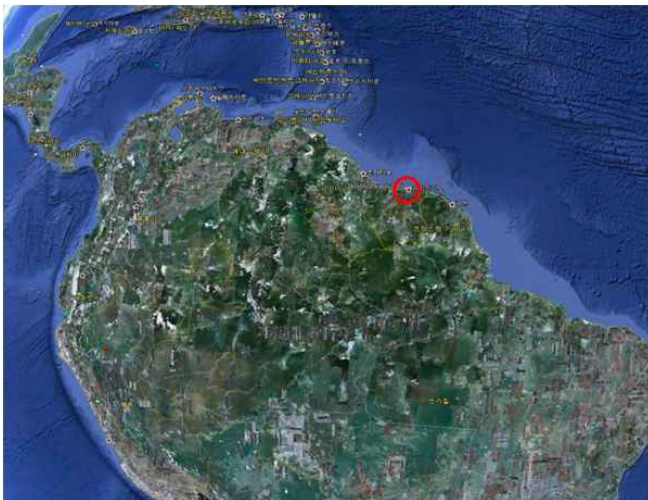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MI 국제물류위클리

□ DP World, 수리남(Suriname) 현지 업체 매입을 통한 남미 물류사업 진출

- 지난 7월 20일 DP World사는 남미 북동부에 위치한 수리남(Suriname) 최대 항만이자 리버 포트(River Port)인 파라마리보(Paramaribo)항의 터미널운영업체인 IPS(Integra Port Services)사와 SPS(Suriname Port Services)사를 매입하여 남미 물류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발표함
- 이번 DP World사가 매입한 IPS사는 컨테이너와 벌크화물을 처리하는 Nieuwe Haven Port 터미널(NHP)을 2010년 4월 파라마리보항만청과 14년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음
 - Nieuwe Haven Port 터미널은 연간 컨테이너 10만 TEU를 처리할 능력을 가진 터미널이나, DP World사는 20만 TEU 까지 처리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춘 터미널로 평가하고 있음
 - 한편 IPS사의 운영계약은 14년 운영계약이 만료되면 15년의 추가 계약이 가능한 조건임
- SPS사는 파라마리보(Paramaribo)항이 위치하고 있는 수리남강 상류에 벌크화물을 처리하는 일반 부두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임
- 한편 DP World사가 이들 두 기업을 매입한 이유는 수리남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에 더 불어 수리남 해양석유시추산업 및 프랑스령 기아나(Guiana)의 석유수출물류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함임

<Paramaribo항 위치>



<Paramaribo항>



자료 : Ci-Online, 2011. 07. 20. / DP World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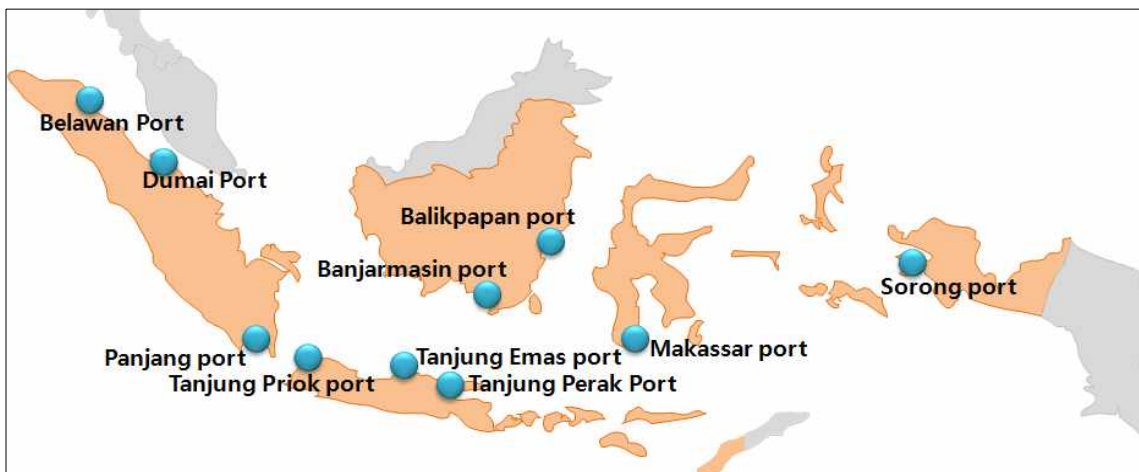
김찬호 책임연구원(☎ 02-2105-2908, chkim@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인도네시아, 2015년 ASEAN 경제통합 대비 14개 항만 개발 예정

- 인도네시아 Mangan Susantono 교통부장관은 2015년 ASEAN 경제통합에 대비하기 위하여 14개 항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힘
- 대상항만에는 인도네시아의 주요항만인 탄중 프리오크(Tanjung Priok) 와 탄중 페렉(Tanjung Perak)도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프로젝트 규모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또한 Susantono 장관은 자금조달 방안으로 AIF(ASEAN Infrastructure Fund)와 한·중·일 등 관심국가들과의 양자 협정을 통한 조달과 함께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음

< 2015년 ASEAN 경제통합 대비 인도네시아 개발예정 주요 항만>



□ APM 터미널, 인도네시아 2015년까지 600~700만 TEU 컨테이너 부두 필요 전망

- 한편 APM 터미널은 인도네시아 국제 컨퍼런스에서 아시아-태평양 담당의 연설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항만 등 인프라 시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되어야 할 컨테이너 부두 시설 규모에 대해 언급하였음
- APM 터미널의 아시아-태평양 포트폴리오 관리 본부장인 Michael Lund Hansen은 Indonesia International Conference- Focus On Indonesian Economy 2011 행사에서 2015년까지 최소 600~700만 TEU 컨테이너 부두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2020년까지는 추가로 1,500만 TEU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자료 : www.thejakartapost.com, 2011.07.14. / APM Terminal 보도자료, 2011.07.22.

송주미 책임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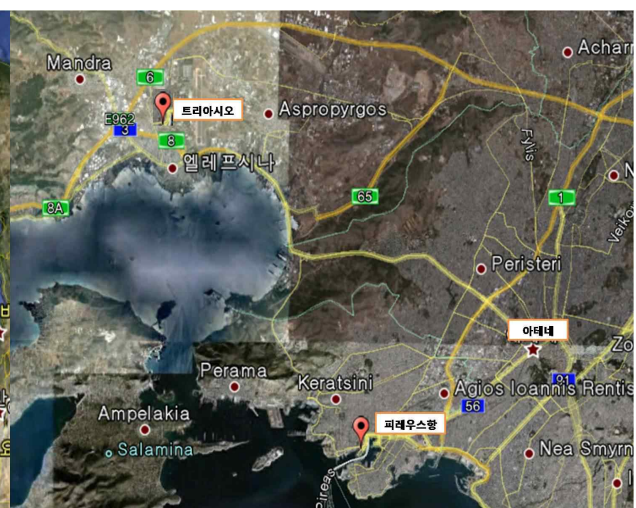
□ 그리스 트리아시오(Thriassio) 물류단지 입찰 무산

- 2011년 6월 19일, 그리스 최대 항만인 피레우스(Piraeus)항 인근에 위치한 트리아시오 물류 단지가 단 하나의 기업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이 무산되었음
 - 그리스 정부는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200,000m²의 부지를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정부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었음
 - 트리아시오 물류단지 개발비용으로 2억 1,2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입찰 과정에서 개발 비용은 한 기업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높다는 비판이 있었음
 - 올해 초 그리스 정부가 피레우스항 제2 컨테이너 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COSCO사의 입찰 계획을 시사하였으나 정작 COSCO사는 한번도 공식적인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음
- 그리스 정부는 피레우스항 근처에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약 30년을 노력해왔으며, 만약 트리아시오 물류단지가 건설되면 그리스 최초의 복합물류단지가 될 예정이었음
 - 그리스 정부가 물류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트리아시오 지역의 면적은 588,000m²로서 현재는 국영 철도운송그룹인 Hellenic Railways Organisation이 소유하고 있음
 - 트리아시오 지역은 아티카(Attica) 고속도로를 통해 아테네 국제공항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 트리아시오와 피레우스항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빨라도 2012년 이전에는 완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Piraeus항 위치>



<Thriassio지역 위치>



자료: www.portguide.com, 2011.07.20. / www.fairplay.co.uk, 2010.10.28.

김홍매 책임연구원(☎ 02-2105-2828, hisgrace@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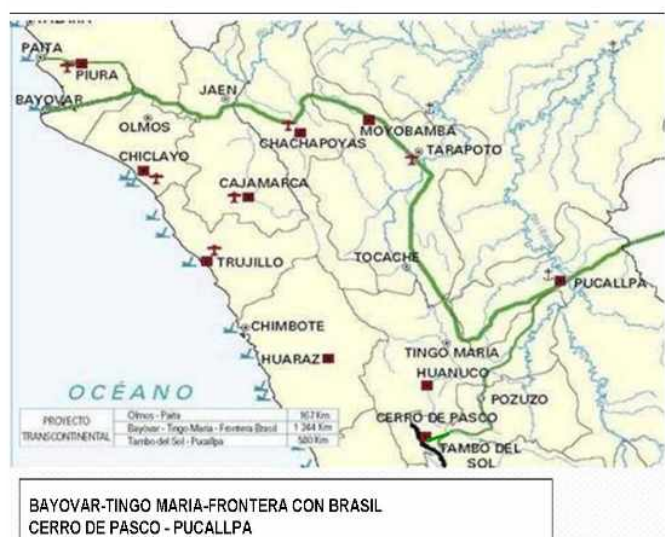
□ 페루, 브라질과 인프라 연결사업 가속화

- 7월 22일 페루의 Tarapoto에서 955Km에 이르는 Yurimaguas-Paita항 연결도로에 착공식이 있었음
 - IIRSA NORTE¹⁾가 시행하게 될 이 도로는 페루의 Piura, Lambayeque, Cajamarca, Amazonas, San Martin, Loreto를 거치고 Yurimaguas 내륙항을 통해 브라질 Manaus까지 연결됨
 - 이 도로로 브라질은 페루를 거쳐 아시아로의 수출길이 열리게 되고 페루는 유럽으로의 수출길이 열리며 페루와 브라질간의 교역도 상당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공사는 총 3억 9,500만 달러가 투자되고 공사기간은 약 2년이 예상됨
 - 완공되면 이 구간 운송에 14시간이 소요되어 이전에 소요되었던 30시간에 비해 상당한 시간감축을 이룰 것으로 전망함
- 이어서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은 Brasil-Peru간 연결철도 프로젝트의 경제성분석 및 기술분석을 곧 시행할 것이며 이에 Peru 투자청(ProInversion)은 지난 6월에 이번 분석을 담당할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표했다고 밝힘
 - 이 프로젝트는 철도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한다는 계획으로 완공시 브라질이 페루 Paita, Bayovar, Sechura와 각각 연결되며 이후 페루 카야오항까지 연결될 것으로 전망됨

<페루 Yurimaguas-Paita간 도로 계획도>



<Brasi-Peru 연결철도 페루구간 계획도>



자료 : www.andina.com.pe, 2011.07.22. / 페루 교통통신부 홈페이지

박철원 연구원(☎ 02-2105-2982, ironwon@kmi.re.kr)

1) Initiative for the Integration of the Regional Infrastructure of South America의 약자로 남미지역 운송, 에너지, 통신분야 프로젝트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브라질 Odebrecht사와 Graña y Montero사로 이뤄진 컨소시엄 기업임

KMI 국제물류위클리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